

법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소급적용 문의하세요”

금융위, 오늘부터 인하 금리 적용 대출 차주, 금리 소급적용 확인해야 안될엔 재계약, 정책서민상품 이용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리인하로 대출이나 신규자금대출이 어려운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금융회사를 통해 연 20% 이하 금리가 소급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율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안전망대출Ⅱ와 햇살론15가 있다.

안전망대출Ⅱ는 고금리 대출을 연 20%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이다. 단,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에 한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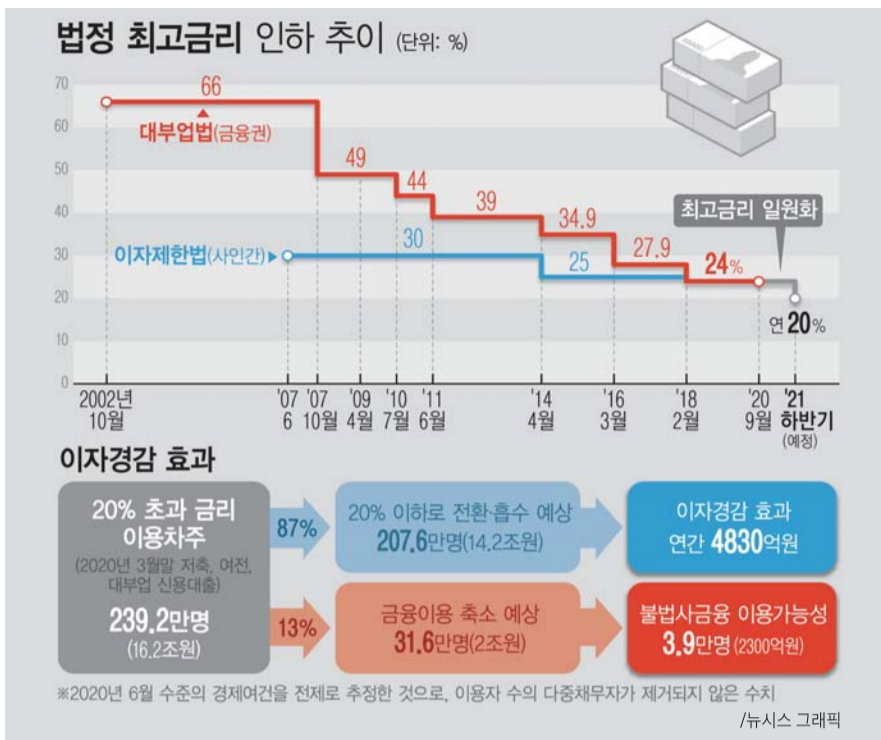
햇살론15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불법추심이 제한되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채널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체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며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예비군훈련 18개월 만에 재개... 9월부터 하루 8시간

기존 2박3일 합숙훈련은 미 실시
올 편성 가용기간 63일로 줄어

지난해부터 전면 연기 및 취소됐던 ‘동원예비군훈련’을 비롯한 예비군훈련이 9월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 등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예비전력 소집이 어려움 속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육군, 어려움 속에서도 ‘전시예비전력 정상화’

6일 육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정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이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이후 군 당국은 동원훈련을 비롯한 예비군훈련 전반을 연기 및 취소해 온 만큼, ‘전시 예비전력 운용의 정상화’란 측면



제60 동원사단 소속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4.2인치 박격포 조포훈련 중입니다. 이들은 지원자로 구성된 예비군들이다. /육군 블로그

에서 관심이 모인다.

본지가 확인한 후반기 예비군 훈련 지침에 따르면 동원예비군훈련은 기존 2박3일 합숙훈련이 아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해체

예정인 부대의 경우 동원예비군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중 동원보충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과 기타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도 이와

동일하게 각각 1일 8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원훈련 미참가자 재입영 훈련은 가용시 반영될 예정이다. 통상 예비군훈련이 3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예비군훈련 편성 가용기간은 약 6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누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예비군훈련의 실시는 성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예비전력의 90%이상을 관리하는 육군의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장기간 예비군 훈련 미 실시, 업무수련에 악영향”

예비군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한 군무원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병복무기간

의 단축으로 선임병들도 동원예비군훈련과 관련된 부대 증·창설 훈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예비군훈련이 장기간 연기 상태로 이어지면, 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업무숙련도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경우 동원예비군훈련통제와 교육을 정예화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마지못정연기했다. 다행히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은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재개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소집부대 및 직책변경 등이 이뤄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들도 당분간은 개인임무과과과 부대현황 적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SKT, 비브스튜디오와 지분투자 계약

▶▶ 1면 ‘메타버스 올라 탄’서 계속

이를 위해 최근 국내 최고 수준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 스튜디오 비브스튜디오와 사업 협력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SKT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사의 ‘점프 버추얼 밋업’, ‘점프AR’, ‘점프스튜디오’ 등과 비브스튜디오의 3D 영상 제작 기술을 결합해 메타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T는 연초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순천향대와 협력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을 선보인 데 이어, 4월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인 ‘주니어 탤런트’ 행사도 ‘점프 버추얼 밋업’ 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다. 또 최근 K팝 스타들과 협업해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메타버스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T는 정부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딜루션, 벤틀트, 코아소

프트, 위지웍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VR, AR, MR(혼합현실) 등 9개 기업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원팀’을 결성했다.

KT 관계자는 “ICT 기업들과 구성한 메타버스 원팀은 관련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된 것”이라며 “메타버스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생태계를 꾸려야 할 지 논의하고 있으며 장비, 콘텐츠, 통신 인프라 등 각 영역에서 역할 분담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세계적인 5G 콘텐츠 연합체인 ‘XR 얼라이언스’ 의장으로 참여하며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합체에는 ‘토이스토리’, ‘스파이더맨’, ‘스타워즈’ 등 XR 콘텐츠를 개발한 AR 기업 ‘트리거’가 최근 합류해 총 7개 지역 11개 사업자가 참여한 세계 최대 5G 콘텐츠 연합체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